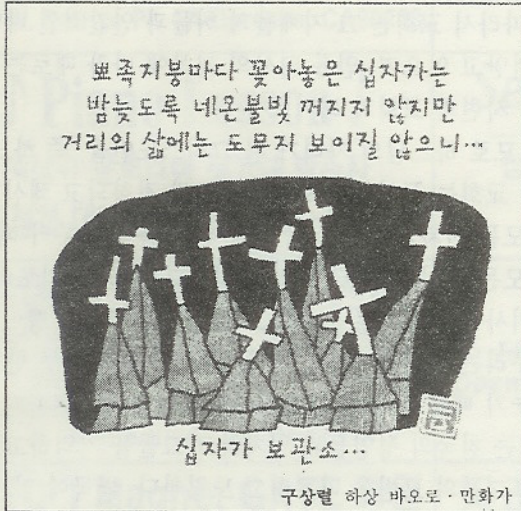


#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성모 성월)  
제28권 26호 (가해) 2008.5.25

## [묵상]



셀 수 없이 반짝이는 어둠 속의 네온사인  
우리가 살다 온 한국 도심의 야경이다.  
사인 없이 걸려있는 빨간 십자가들...  
성당은 아니지만 교회라는 표시들이다.  
십자가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구원과 영생의 안내자요 표시판이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를 뽀족지봉 위에 세운다고  
마냥 영생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하셨듯이  
거룩한 미사의 성체성사를 거행하며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이 세상의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자신의 것이라 하리라.(人)

##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불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     |                              |                                |
|-----|------------------------------|--------------------------------|
| 수요일 | 평일 미사                        | 오후 7:30                        |
| 목요일 | 평일 미사                        | 오후 7:30                        |
| 금요일 | 평일 미사                        | 오전 8:30                        |
| 토요일 |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br>특전미사 (청년미사) | 오전 8:30<br>오후 7:00             |
| 주일  | 아침 미사<br>주일학생미사(영어)<br>낮 미사  | 오전 7:30<br>오전 9:30<br>오전 11:00 |

## 주간 행사

|     |                                                                                                                                              |                                                                        |
|-----|----------------------------------------------------------------------------------------------------------------------------------------------|------------------------------------------------------------------------|
| 화요일 |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 오후 7:30                                                                |
| 수요일 |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br>거룩한 독서(Lectio Divina)<br>레지오 마리아                                                                                         | 오후 2:00<br>오전 10:00<br>오후 8:00                                         |
| 목요일 | 병자영성체 (1째주)<br>성 시간 (첫목요일)<br>성령 기도회<br>예비자 교리반                                                                                              | 오전 9:30<br>저녁 미사후<br>오후 8:00<br>오후 8:00                                |
| 금요일 |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br>M. E. Sharing(3째주)<br>울뜨레아 (4째주)                                                                                    | 오전 10:00<br>오후 7:00<br>오후 8:00                                         |
| 토요일 |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br>배론 청년모임<br>폐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 오후 6:00<br>오후 5:00<br>오후 8:30                                          |
| 주일  | 병자 영성체<br>글로리아 성가대<br>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br>2째주 - 모임의 날<br>● 빈첸시오회<br>●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br>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br>3째주 - 행사의 날<br>4째주 - 사목회<br>가정의 날 | 오전 중<br>오전 9:00<br>오후 1:00<br>오전 9:00<br>오전 9:00<br>오후 1:00<br>오후 1:00 |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                                                                                                                                                   |
|-------------|---------------------------------------------------------------------------------------------------------------------------------------------------|
| 토 요<br>특전미사 | (연)김중돈 스테파노, 고준희 제임스, 방동원, 한영한<br>심재순                                                                                                             |
|             | (생)고천웅과 규재 체칠리아 가정, 이재정 요한<br>정한모 미카엘, 최석원 안드레아와 원희 엘리사벳가정                                                                                        |
| 주 일<br>낮 미사 | (연)김중돈 스테파노, 이영자 마리아, 이현호 요한<br>이은환 야고보, 고준희 제임스, 정형두 바오로<br>신식이 모니카, 배성희 마가렛, 심재순                                                                |
|             | (생)이종민 요셉, 고천웅과 체칠리아 가정, 문글라라<br>오화석과 이미나 헬레나, 이유진 대건 안드레아<br>엄정자 분다, 정순석 레오와 정숙 레아, 김재순 아가다<br>문두현 스테파노와 베로니카 가정, 정한모 미카엘<br>김남호 올리오와 최운정 레지나 가정 |

## 오늘의 전례

|               |                                                                                                                                                                                                                                                                                                            |
|---------------|------------------------------------------------------------------------------------------------------------------------------------------------------------------------------------------------------------------------------------------------------------------------------------------------------------|
| 제 1독서         | 신명기 (Deuteronomy) 8,2-3.14-16                                                                                                                                                                                                                                                                              |
| 화답송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전례성가75,A해><br>◎주님을 찬양하여라, 예루살렘아. 시온아, 네 하느님<br>찬양하여라. 네 성문 자물쇠를 굳게 하시고, 네 안의<br>자손에게 복을 내리셨도다.◎<br>◎네 강토에 평화가 깃들이게 하시고, 밀곡식 그<br>진미로 너를 배불리시도다. 당신의 말씀을 땅으로<br>보내시니, 그 말씀 날래게도 지쳐가도다.◎<br>◎주님께서 당신 말씀 아굽에게 내리시고, 당신법과 계<br>명을 이스라엘에 알리셨으니, 어느 백성에게도 이같이<br>아니하셨고, 그들에게 당신 계명 아니 알리셨도다.◎ |
| 부속가<br>(성체송가) |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br>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br>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br>저희에게, 크신자비 배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br>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br>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br>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br>만드소서.                                                                               |
| 제 2독서         | 코린도 1서(1Corinthians) 10,16-17                                                                                                                                                                                                                                                                              |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br>◎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br>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 복음            | 요한(John) 6,51-58                                                                                                                                                                                                                                                                                           |
| 영성체송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br>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안에 머무르리라.                                                                                                                                                                                                                                           |

## 오늘의 성가

|     | 청년미사(토요특전) | 낮 미사    |
|-----|------------|---------|
| 미사곡 | 51-58      | 33-42   |
| 입당  | 106        | 106     |
| 봉헌  | 269        | 190,259 |
| 성체  | 409        | 284,308 |
| 파견  | 383        | 332     |

## 12.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습니다.(끝)

### ▶ 모든 성인의 통공

교회는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비로소 완전하고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켜야 할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의 순례자들이므  
로 그들로 구성된 이 지상의 교회는 순례하는 하느님의 백성  
이다. 따라서 교회는 그 지체들의 허물과 인간적인 나약함도  
함께 껴안고 있으며, 인류 역사의 기복에 따라 때로는 영광의,  
때로는 시련의 교회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즉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는 끊임없이 회개함으로써 정화되고 쇄신되어야  
한다.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우  
리는 ‘모든 성인의 통공’ 교리를 믿는다. 우리는 기도와 회생,  
특히 미사성체로 서로 일치하고 돕는다. 그것은 “빵이 하나이  
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  
께 나누기 때문”(1코린 10,17)이다.

우리는 천국의 성인들과 일치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축일을  
지내고 그들의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천국에 있는 성인  
들도 우리와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며,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께 기도한다. 이를 일컬어 전구(轉求)라고 한다. 전구는 성모  
마리아나 천사 또는 성인들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다. 또한 우리와 천국의 성인들은 천국에 들지  
못한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그  
리스도 신자, 곧 지상에서 순례자로 있는 사람들, 연옥에서 정  
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죽은 이들, 천국에 들어 이미 영광을  
누리는 성인들이 모두 일치하여 오직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믿는다.

이렇게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  
의 성전이다. 또한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  
로부터 이어 끊임없이 계승된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  
느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려주신 고유한  
직무를 수행할 사명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수행함으로써 교  
회는 더욱 충만해지고 마침내 그 완성에 이르게 된다. 신자들  
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므로 서로 존경  
하고 사랑하며, 기쁨과 즐거움은 물론 슬픔과 고통도 함께 나  
누어야 하는 형제자매들임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  
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  
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  
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1코린 12,12-27)

◆(CBCK 제공 / 계속)

##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교회의 전례는 성체성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남겨 주신 큰 선물입니다. “나는 내 백성에게 기름진 참밀을 먹게 하고, 바위의 꿀로 배부르게 하리라”(시편 81,17 참조)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요한 6,56)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과의 일치를 사도 바오로는 신비체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은 성체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로 양육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신명 8,3)라고 오늘 제1독서에서 말합니다.

또한 오늘 복음에서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요한 6,57)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늘 활기 있는 몸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교회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신앙인은 아우구스티노 성인

이 자주 언급하던 ‘하느님을 향하는 한 마음 한 뜻’을 형성합니다. 이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얻게 되는 생명을 통해 표현됩니다. 또한 성체성사를 통해 갖게 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것처럼 그분의 몸과 피를 통해 양육되는 그리스도인도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가고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주님께서 어떻게 현존하고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분은 ‘조개진 몸’으로서 그리고 ‘홀린 피’로서 계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리고 자신의 심장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때까지 자신의 온 삶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조개진 몸’과 ‘홀린 피’를 받아 먹고 마시면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오리이다”라는 영성체 전의 고백을 입으로만이 아닌 온 마음으로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하듯, “그리스도의 몸”에 “아멘”이라고 응답할 때 그 “아멘”이 참된 대답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순결을 간직하고 진정 우리의 희망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성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늘 저 높은 곳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변종찬 마태오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 이번주 전례 봉사자

### 다음주 전례 봉사자

| 이번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다음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최태훈<br>아오스딩    | 이호미<br>엘리사벳 | 엄영숙<br>마리아    | 해설자   | 최지영<br>크리스티나   | 정미영<br>미카엘라 | 최진수<br>에우세비오 |
| 제1독서자 | 이범주<br>다니엘     | 김교복<br>레오   | 이영석<br>크리스토폴  | 제1독서자 | 김제영<br>프란치스코   | 박진수<br>스테파노 | 유철희<br>바오로   |
| 제2독서자 | 문재원<br>클로틸다    | 박혜경<br>레나타  | 권순길<br>세실리아   | 제2독서자 | 박경리<br>엘리사벳    | 박혜경<br>레나타  | 유현자<br>안나    |
| 제물봉헌자 |                |             | 토런스<br>남 1/3반 | 제물봉헌자 |                |             | 토런스<br>서 1반  |

◆ 교무금은 재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예수성심 대축일 미사 :

30일(금) 오전 8시30분

◆ 성모의 밤 : 31일(토) 오후 8시, 성전

● 준비물 : 컵초, 묵주

● 성모님께 꽃을 봉헌하실 단체나 개인은 사무실에 접수하여 주십시오.

(토요특전미사는 오후 7시에 있습니다.)

5월

성모 성월

◆ 어르신 교우들을 위한 장수 사진 촬영 무료봉사

사목회 홍보분과 이진행 힐라리오 형제가 활동하는 재미사 진 동호회 '사진 러브'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교우를 위한 장수(영정)사진을 촬영해드립니다.

● 일시 : 오늘 주일(25일) 오전 11시~오후 1시30분

● 장소 : 강당 ● 문의 : 이진행 힐라리오 ☎714-290-4807

◆ 양업회 춘계 야유회

● 일시 : 5월26일(월) 오전 10시~오후 4시

● 장소 : 웨스턴 바닷가(약도 사무실에 비치)

● 회비 : 가족당 \$20(준비물 : 따뜻한 옷)

● 연락처 : 양업회 총무 이재용 안드레아 ☎949-502-1213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주일학교/한국학교 임시 휴강

Memorial Day 연휴로 오늘 주일(25일) 수업이 없습니다.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 시작합니다.

● 등록기간 : 6월1일~8일(주일), 미사 전 · 후

● 대 상 : 유치부(K)~12학년까지

● 등록비 : 첫째아이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아이 부터는 무료(자모회비 : 한 가정당 \$20)

◆ 목요교리반 받아들이는 예식

● 일시 : 5월29일(목) 오후 7시 30분 미사 중

● 대부/모님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

지난 주일 본당의 활성화와 전선을 위해 마련된 백삼위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참석한 모든 신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일시 : 6월3일(화)~6월8일(주일)

오후 7시~10시(주일은 오후 2시~6시)

● 지도 : 방부역 요한 신부님(사도 성요한 수도회)

● 문의 : 최기남 야고보 성령기도회 ☎ 310-569-3940

◆ 초,중,고등부 세례 및 첫영성체

● 찰 고 : 6월14일(토) 오후 3시

● 총연습 : 6월14일(토) 오후 4시

● 세례식 : 6월14일(토) 오후 5시(유아세례도 있습니다.)

● 첫영성체 : 6월15일(주일), 낮미사 중(11시)

● 축 하 식 : 6월15일(주일), 낮미사 후, 강당

◆ 제8회 M.E. 친선 골프대회

● 일시 : 6월18일(수), 티오프 오전 11시(샷전 플레이)

● 장소 : 로스 버디스 골프코스(R.P.V.)

● 주최 : 남가주 한인M.E.운동본부

● 연락 : 오영섭 스테파노 + 요안나 본당 M.E. 대표부부 ☎ 310-922-1502

(메달리스트, 장타상, 근접상, 홀인원, 부부상 및 다양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빈첸시오회에서 안쓰는 묵주 등 성물을 수거합니다.

각 가정에 사용하지 않는 묵주나 성물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남미에서 선교하는 한국 수도원에 보내드립니다.

● 수집함 : 사무실에 비치

● 문 의 : 이안셀모 ☎ 310-908-8823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5월25일(주일) : 하버/카슨 1,2반(콩나물·무·고기국 \$ 3)

● 6월 1일 (주일) : 전신자들과 함께 떡·김밥 나눔의 자리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                                              |     |     |     |      |     |
|-----|----------------------------------------------|-----|-----|-----|------|-----|
| 교무금 | 강인모                                          | 국세찬 | 권태만 | 김병태 | 김원호  | 김정엽 |
|     | 김찬구                                          | 김한진 | 민봉식 | 민찬기 | 박광자  | 서홍삼 |
|     | 신순철                                          | 엄세중 | 유경자 | 육근주 | 이석제  | 이재정 |
|     | 이현주                                          | 장정진 | 정열모 | 정인식 | 조경림  | 조소영 |
|     | 조윤영                                          | 조현옥 | 최영신 | 최진수 | 최현찬  | 한금순 |
|     | 한승일                                          | 한창주 | 호경진 | 황지영 | 크리스리 |     |
|     | 합계 : \$4,490                                 |     |     |     |      |     |
|     | 미사헌금 : \$2,106    2차헌금(미안마, 중국 돕기) : \$2,527 |     |     |     |      |     |

|      |              |     |     |     |     |     |
|------|--------------|-----|-----|-----|-----|-----|
| 성전헌금 | 강인모          | 국세찬 | 권태만 | 김병태 | 김원호 | 김정엽 |
|      | 김찬구          | 김한진 | 민봉식 | 민찬기 | 박광자 | 서홍삼 |
|      | 신순철          | 엄세중 | 유경자 | 육근주 | 이석제 | 이일길 |
|      | 이재정          | 이현주 | 장정진 | 정열모 | 조경림 | 조소영 |
|      | 조윤영          | 최영신 | 최진수 | 최현찬 | 한금순 | 한승일 |
|      | 한창주          | 호경진 | 황지영 |     |     |     |
|      | 합계 : \$2,960 |     |     |     |     |     |
|      |              |     |     |     |     |     |

## 이 주간의 축일 (5월25일~5월31일)

### 축하합니다

- 25일 : 마리아 막달레나 동정녀, 올라노 1세 교황 순교자, 베다 사제 학자, 그레고리오 7세 교황, 알델모 주교
- 26일 : 필립보 네리 사제 증거자, 파드라토 주교, 엘레우테리오 교황 순교자, 마리아나 동정녀
- 27일 : 아우구스티노 주교, 라눌포 순교자, 리스티투타 동정 순교자, 브루노 주교, 레스티투타 순교자
- 28일 : 젤마노 주교, 베르나르도, 포디오 주교, 말가리다 부인 순교자
- 29일 : 막시미노 주교, 레스티투타 순교자, 테오도시아 동정 순교자, 제랄도 주교
- 30일 : 펠릭스 1세 교황 순교자, 페르디난도 3세 왕, 성녀 잔다크 동정, 후베르토 증거자
- 31일 : 칸시오 순교자, 칸시아노 순교자, 베드로닐라 동정 순교자, 루피치노 주교, 비탈리스 은수자

## 남가주 소식

### ◆ 원필호 요한 몬시뇰 사제수품 50주년 금경축 미사

- 일시 : 6월15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 성크리스토퍼 한인천주교회(주임 이용희 신부)  
☎ 626-960-5647(웨스트 코비나)

### ◆ 미주 재속 가르멜회 성소 안내

재속 가르멜 회원들은 복음적 완덕의 삶을 살고자, 수도원안에 있는 수도자들과 똑같은 가르멜 영성(관상, 사랑, 사도직)을 세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 자격 : 세례성사를 받은지 3년 이상, 견진성사를 받은 55세 이하, 법적, 지적, 윤리적으로 건강한 신자
- 성소식별 청원자 교육 : 6.7.8월 월모임 통해 교육
- 모임 : 매월 둘째 주일 오전 9시~오후 5시
- 장소 : 521 N. Euclid St. La Habra, CA 90631
- 문의 : 유철희 바오로 ☎ 310-320-3697

### ◆ 청소년들을 위한 꽃동네 Summer Camp 피정

- 일시 : 6월26(목)~29(주일), 3박 4일
- 대상 : 7학년~12학년
- 참가비 : \$120 ☎ 951-302-3400

### ◆ 남미 의료 봉사단 모집

- 일시 : 7월7일(월)~16일(수), 에콰도르 과야킬
- 지도 : 이영찬 사도요한 신부(LA 성 아그네스 성당 주임)
- 참가비 : \$1500 ☎ 213-272-7404 김안나  
(의사/간호사들의 많은 참여와 의약품, 선교물품, 현금기증을 기다립니다.)

## 이번 주 단체 모임

|         |       |
|---------|-------|
| 사목상임위원회 | 오후 1시 |
|---------|-------|

## 다음 주 단체 모임

|           |       |
|-----------|-------|
| 구역장/반장 회의 | 오후 1시 |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 소공동체 부장<br>차장<br>차장              |     |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br>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br>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                                            |
|----------------------------------|-----|--------------------------------------------------------------------------|--------------------------------------------|
| 구역/장                             | 반   | 반장                                                                       | 장소/날짜                                      |
| 토런스 동<br>유현자<br>안나<br>320-3697   | 1   | 김양금 안나<br>518-3041                                                       | 김양금 안나 518-3041<br>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
|                                  | 2   | 신중철 아브라함<br>619-4343                                                     |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br>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
|                                  | 3   | 한길선레 스펠라스타카<br>782-1025                                                  | 한길선레 스펠라스타카 782-1025<br>5/16(금) 오후 8시, 성당  |
|                                  | 4   | 정종미 클라라<br>373-1237                                                      | 정종미 클라라 373-1237                           |
| 토런스 서<br>김숙희<br>오틸리아<br>782-8549 | 1   | 엄혜은 도로테아<br>200-0512                                                     |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br>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
|                                  | 2   | 이명순 크리스티나<br>374-1572                                                    |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br>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
|                                  | 3   | 김미성 미리암<br>798-6540                                                      | 김미성 미리암 798-6540<br>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
|                                  | 4   | 이은록 요셉<br>371-4645                                                       | 이은록 요셉 371-4645                            |
| 토런스 남<br>김씨니<br>클라라<br>612-8840  | 1   | 신성주 엘리사벳<br>891-1837                                                     |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br>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
|                                  | 2   | 임진희 한나<br>720-7898                                                       | 박소화 테레사 533-9312<br>5/7(수) 오전 10시30분       |
|                                  | 3   | 임형미 사비나<br>213-258-7797                                                  | 장수창 요한 486-1982<br>5/16(금) 오후 7시30분, 성당    |
|                                  | 4   | 이정훈 안셀모<br>908-8823                                                      | 이정훈 안셀모 908-8823<br>5/16(금) 오후 8시, 성당      |
| 토런스 북<br>이복임<br>엘리사벳<br>516-0818 | 1/2 | 박정희 마리아<br>800-3709                                                      | 박정희 마리아 800-3709<br>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
|                                  | 3   | 천광락 야고보<br>408-3175                                                      | 천광락 야고보 408-3175<br>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
| 하버 카슨<br>박혜경<br>레나타<br>808-5005  | 1   | 최경애 프란치스카<br>326-6587                                                    |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
|                                  | 2   | 김희복 아네스<br>326-2283                                                      | 김희복 아네스 326-2283<br>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
|                                  | 3   | 이영희 카타리나<br>518-1736                                                     |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
| P. V.<br>이정숙<br>스테파니<br>755-1794 | 1   | 유성혜 도미니카<br>562-209-4454                                                 |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br>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
|                                  | 2   | 김숙희 유소사<br>544-4807                                                      | 김숙희 유소사 544-4807<br>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
|                                  | 3   | 윤은경 미카엘라<br>265-0856                                                     |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br>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
|                                  | 4   | 송기순 엘리사벳<br>265-0495                                                     |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br>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

## “99송이 빨간 장미의 사연”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의 연인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자가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5년이나 외국으로 떠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출국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남자가 여자에게 말 했습니다. “내가 떠나고 일 년째 되는 날, 너에게 장미꽃을 보낼게. 그 장미가 백 송이가 안 되면 날 기다리지 말고 만약 백 송이가 되면 꼭 기다려줘. 약속할 수 있겠어?”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자가 떠난 지 꼭 일 년이 되던 어느 날, 예쁜 카드와 함께 장미꽃이 배달되었습니다.

여자는 장미 꽃송이를 헤아리고 또 헤아렸지만 장미는 99송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너무나 실망하여 카드를 읽을 생각도 못하고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5년이란 긴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돌아온 그 남자는 여자가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꼭 한번 만나서 물어볼 것이 있다며 여자에게 만남을 청했습니다.

어렵게 마주한 자리에서 남자가 물었습니다.

“장미 꽃송이는 세어보았는지요.”

“네, 99송이더군요.”

“맞습니다. 카드는 읽지 않았나요?”

“카드요?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인 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가 그녀를 위해 보낸 장미 꽃다발 사이에 끼어놓은 단 한 줄의 사연을...

“마지막 한 송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 “내가 만드는 행복과 불행 이야기”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고난에 굴복하고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루를 좋은 날로 만들려는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나중에’라고 미루며 시간을 놓치는 사람은 불행의 하수인이 됩니다.

•힘들 때 손 잡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의 당선자이고, 그런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행복 낙선자입니다.

•사랑에는 기쁨도 슬픔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고, 슬픔의 순간만을 기억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잠잘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작아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남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 사람은 이미 행복하고, 상대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만 섭섭한 사람은 이미 불행합니다.

•미운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은 반비례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은 정비례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불행의 독불장군이지만,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연합군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미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수시로 닦고 조이고 가르치는 사람은 행복 기술자가 되겠지만, 게으른 사람은 불행의 조수가 됩니다.

•아침에 “잘 잤다.” 하고 눈을 뜨는 사람은 행복의 출발선에서 시작하고, “죽겠네.”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불행의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은 취미를 가지고 살면 삶이 즐겁고 기쁘지만, 나쁜 취미를 가지면 건강에도 해로울 뿐 아니라 늘 불행의 불씨를 안고 살게 됩니다.◆